

* 이번 호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설계중인 14기1년차 사업계획(안)중 정세 부분을 참고,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계경제: 자국 무역보호 강화

세계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침체되거나 낮은 성장률이 굳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중국 부동산 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제조업 가동률, 생산량, 수출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은 2% 수준으로 안정화되더라도, 2022년부터 쌓여온 물가상승률 만큼 실질임금 인상률이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세계 나라들이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과 업종, 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자본은 미국이나 EU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다른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의 고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기술이 노동현장에 적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무를 전환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경제: 민생와산업의 위기

한국의 경제 또한 저성장을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국은 당장 수출을 주도할 산업 동력이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필수 소비외에 자동차, 가전 등의 내수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에너지 수입비용이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는 갈수록 벌어지는 우리안의 격차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미적용)은 250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비정규직은 929만명(2025 8월 기준, 2024년 보다 6만명 증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1.5%를 차지하는데, 월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5%에 불과합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6.11배로 더 벌어졌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620만원인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370만원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298만명), 특수고용노동자(171만명),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88만명)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안의 격차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동향**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관세 인상은 노동자에게 고용 조정과 임금인상 억제 압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위험이 큼니다. '휴머노이드'를 빠른 시일에 생산 조립공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자본과 언론의 '공포 이데올로기' 확산이 제조업 노조 현장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자동차·철강: 산업정책개입 절실

한국 자동차산업은 관세영향으로 생산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완성차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가동되면서 내연기관 전용 부품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뿐만 아니라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싸고 좋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내수 부품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박은 심해질 것입니다. 원청 완성차는 수익 유지를 위해 손해를 부품사 노동자에게 이전시킬 것입니다. 원청의 납품단가인하(CR) 압력을 차단할 국가와 산별노조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범용재 (건설, 조선 등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일반 철강제품)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졌고, 설비 통합의 구조조정과 생산감소의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냉연강판, 중후판, 특수강 부문도 다른 나라와의 기술력 격차가 좁혀지고 싼 값의 철강재 수입으로 수익이 제한적입니다. 철강 구조조정 법이라 일컫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이 과정에 철강산업 노동조합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배제되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이

단위: 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